해남 어란진항,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선정

총 사업비 387억원 투입…2028년 사업 착공

근로자 쉼터 신축 등 스마트 국가어항 거점 조성

해남군은 송지면 어란진항이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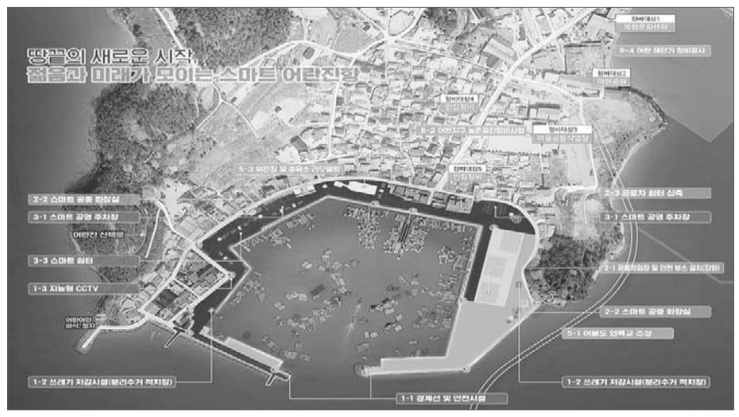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어란진항에 국비 150억원 등 총사업비 387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쉼터를 신축하고 공동실내작업장과 스마트 광장 및 스마트 쉼터, 해양쓰레기 저감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산품인 물김과 전복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과 상품화를 통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 스마트 어항, 안전하고 투명한 어항운영을 통해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지능형 스마트 국가어항으로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각종 설비 확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풍부한 수산물 생산을 뒷받침하는 편리한 어항, 스마트한 시스템의 매력적인 어항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한 국가 어항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클린 국가어항 사업'은 기존에 수산기능 중심으로 운영되던 어항을 환경 정비와 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전국 7개소, 전남에서는 해남을 비롯해 강진과 영광 등 3개소가 선정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어란진항이 국가어항으로써 위상을 더욱 높이고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서 함께 걸어요"

치매안심센터, '한마음 치매극복 봄꽃걷기' 내일 개최

화순군은 치매안심센터가 25일 화순읍 봄꽃축제장 꽃강길 음악분수대 앞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2025년 한마음 치매극복 봄꽃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한마음 치매극복 봄꽃걷기' 행사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번 건강걷기 행사에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예방 체조 ▲치매관련 OX 퀴즈 및 캠페인 ▲치매예방 봄꽃걷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출발지, 도착지에서 걷기 스탬프 도장을 완성한 주민 300명에게 소정의 완주기념품(미니 에코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치매극복 건강걷기 행사는 25일 화순읍 봄꽃축제장 꽃강길을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화순=주용현 기자

완도 '기후 대응 도시 숲' 본격 조성

지역 향토 수종 활용, 2만 8000여 본 식재

완도군이 기후 대응 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총 12억 원을 투입, 군외면 원동교차로 일원(1.2ha)에 '기후 대응 도시 숲'을 본격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은 생활권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도시 숲을 조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도시 숲은 단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변화 예방,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미세먼지 차단, 생활권 내 탄소흡수원 확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군은 최근 군목으로 변경된 완도호랑가시나무를 포함 지역 향토 수종 위주로 난대 활엽수 25종, 약 28,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미세먼지 제거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후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수종으로 꼽히며, 빨간 열매는 관상 가치가 높다.

도시 숲 조성은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도시 숲은 조경을 넘어 하나의 숲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 인프라이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시 숲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녹색전국연합 목포지회 유달동 청결 활동 실시

(사)녹색전국연합 목포지회는 지난 20일 봄 행락철 관광객 맞이를 위해 서산초등학교 후문 공한지 일대에서 청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청결활동은 녹색전국연합이 주관하고, 유달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유달동 자생조직연합이 함께 참여해 총 40여 명이 힘을 모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서산초 인근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초작업을 펼쳐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활동은 오는 24일 개막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선수단과 관광객을 쾌적하게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한, 5월에 예정된 뮤직플레이 등 각종 문화행사에도 대비해 정기적인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숙자 지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결활동에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과 유달동 자생조직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유달동뿐 아니라 목포시 전체가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재욱 기자

장성, 전남 최초 과수 화상병 예찰 '스마트폰 앱' 활용

'디지털 예찰방제단' 가동… 5~11월 사과 · 배 재배 필지 정밀 예찰

장성군이 전남 최초로 과수 화상병 예찰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다.

군은 5월부터 11월까지 1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지역 내 모든 사과 · 배 재배 필지를 예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찰 시에는 스마트폰 앱 '팜식스플러스'를 사용할 계획이다. △실시간 예찰 현황 확인 △의심증상 등록 △병해충 발생정보 입력 △사진 촬영 △음성 메모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장성군은 지난해 '팜식스플러스' 시범 사용을 통해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디지털 기반 예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됐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전염성 세균병으로, 발견 즉시 제거 · 폐기 · 매몰해야 한다. 폐원 시에는 18개월 간 재배금지 조치가 취해질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장성군은 꽃 피기 전후로 3회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방제 시기를 실시간 안내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방제시스템 도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디지털 예찰방제단 운영이 과수 화상병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가에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로 '화상병 청정 장성'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암 청소년들, 디지털 기술 체험으로 지역 역사와 만난다

군, 전남 호국정신 함양사업 공모 선정…도비 200만원 확보

영암군의 청소년 체험 역사교육 프로그램 '기억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와 만나다'가, 지난 21일 '전라남도 호국정신 함양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역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영보항일농민운동,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관 등 영암 현충시설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에 나서는 내용.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 5~12월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영암 초 · 중학생이 참여한다. 이들은 증강현실(AR) 콘텐츠, 스토리텔링 역사 탐방, 역사 추적 게임, 역사 토론 및 영상 제작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체험으로 지역의 역사를 배운다.

특히, 지역 독립운동가의 애니메이션 관람, 디지털 역사 콘텐츠 사전 교육 등으로 체험활동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영암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영암문화관광재단, 문화해설사와 함께 마련한 역사 퍼즐, 사진 기록 미션, O/X 퀴즈 등은 청소년들을 지역 역사의 중심으로 안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혜성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역사 교육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이해하고, 영암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광양, 읍면동 생활개선회원 대상 과제교육

지역농산물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이달 말까지 진행

광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각 읍면동 생활개선회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 밀 발효 빵 만들기', '발효 된장 만들기', '천연염색', '도자기 만들기', '동백두건 만들기'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읍면동별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옥룡면에서 '동백두건 만들기', 옥곡면에서 '우리 밀 발효 빵', 동광양에서는 '새싹보리 된장', 진상면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진월면에서는 '저염 된장', 광양읍에서 '저염 된장' 체험이 각각 진행됐다. 이어 29일에는 봉강면에서 '천연염색' 교육이 예정돼 있다.

서정순 생활개선광양시연합회장은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소득사업을 발굴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개선회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 지역 봉사, 쌀 소비 촉진 등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은희 광양시 기술보급과장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개선회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여성친화도시 광양의 여성농업인 학습단체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개선광양시연합회는 7개 읍면동에서 301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광양=조순익 기자

강진,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7월부터 적발 시 즉시 철거

강진군이 최근 관내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계고 조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군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를 통해서만 게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현수막의 게시 가능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 현수막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등)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 제외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주변 등 옥외광고물법상 게시가 금지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군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전 계고 후 철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를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불법 현수막 발견 시 별도의 계고 없이 즉시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 /강진=김경선 기자

순천, 신청사 올해 말 준공 목표… '사람이 모여드는 원도심 실현'

생태적 · 실용적인 청사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 원도심 문화생활환경 개선

순천시가 오랜 염원을 담아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42%에 달하며, 오는 8월까지 철골 및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 · 외부 마감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현 청사에서 동측으로 확장하여 대지면적 25,843㎡, 연면적 47,143㎡ 규모(지하 1층~지상 6층)로 건립된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상권 회복과 생활 · 문화 · 경제 공간 확충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 1층에는 시민과 함께 열린 공간인 북카페, 민원실, 직장어린이집, 금융기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2층부터는 쾌적한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앙공원과 6곳의 중정을 통해 도심 속 쉼터이자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지하에는 52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돼 시민들의 주차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신청사와 연계해 조성되는 '문화스테이션'도 행정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스테이션은 연면적 12,419㎡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신청사 동측에 건립되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층, 은퇴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설계돼,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문화스테이션은 골조공사를 마치고 외부 마감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순천=조순익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 '오담(五潭) 행복 간담회' 가져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현장 목소리 청취

담양군은 지난 22일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오담(五潭) 행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철원 군수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중심의 민원 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민원 응대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친절한 응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정철원 군수는 "군정의 출발점은 군민의 목소리이며, 그 중심에 민원담당 공무원 여러분이 있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민원에 진심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승채 기자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뮤지엄x즐기다' 프로그램 선정

5월 한 달간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예정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박물관 · 미술관 주간 '뮤지엄x즐기다'」 교육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뮤지엄x즐기다' 사업은 실험적인 신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박물관 · 미술관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급변하는 공동체,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저녁노을미술관은 기획전 '보타니, 섬의 정원' 전시와 연계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기관 대상 학교연계 '우리가 만드는 미니정원', ▲신안군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퍼포먼스 '자연을 몸으로 느끼기', ▲성인 대상 주말교육프로그램 '1004섬 미니 예술 정원'이며, 오는 5월 한 달간 진행된다.

/신안=정경욱 기자